
 금융위원회	<h1>보도반박</h1>	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 2021.3.24.(수)	
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산업지원팀장 이 진 호(02-2100-1680)	<b>담 당 자</b>	김 수 아 사무관 (02-2100-1680)
	금융위 구조조정지원팀장 최 치 연(02-2100-2930)		오 형 록 사무관 (02-2100-2931)
	산업은행 기금사무국장 박 찬 호(02-787-5002)		이 형 진 팀 장 (02-787-5008)
	산업은행 기업금융2실장 최 동 선(02-787-5450)		이 용 준 단 장 (02-787-5430)

**제 목 : 기안기금에서 아시아나 항공에 지원된 자금은  
'20.12월말까지 지원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 완료  
되었습니다.**

**[헤럴드경제 3.24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]**

## 1. 기사내용

- 헤럴드경제의 '21.3.24(수) 「아시아나항공, 기안기금 유용 의혹 '도마'」 제하의 기사에서
  - “2조4,000억원의 기안기금 지원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이 계열 저비용항공사(LCC)에 자금을 대여해 유용 가능성이 제기된다.”
  - “기안기금은 계열사 지원이 금지된 돈이다.” 등을 보도

## 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 · 산업은행의 입장

- 아시아나항공에 지원된 기안기금 자금은 총3,000억원[(대출 2,400억원('20.10.22), 영구채 600억원('20.12.29)]이며, 상기 자금은 리스부채 상환(1,215억원), 유류비(875억원), 인건비 등(911억원)의 용도로 '20.12말까지 사용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.

- '21.3.24일 아시아나항공이 계열 LCC에 지원한 자금은 기안  
기금의 자금이 아니라 대한항공과의 통합과정에서 유입된  
자금 등 자체 자금을 활용한 것입니다.

\* 에어부산-에어서울에 대한 자금지원은 영구CB 인수 및 자금대여 형식으로 집행

-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언론보도로 인해 특정 업체에 대한  
피해뿐 아니라, 정부 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  
하지 않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 
prfsc@korea.kr

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